

국제한국무슬림학생연합회문서 ③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날카로운 질문과 해답들

지은이: Dr. Naji I. Al-Arfaj

옮김: Huseyin KIRDEMIR, Lee Hyung Joo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진지하고, 정직하게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목 차

- 미리 던지는 질문 4
- 머리말 5
- 하나님은 한 분인가 아니면 세 분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7
- 셋은 동등한 것인가? 24
-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28
-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30
- 결론 35
- 참고문헌 39

미리 던지는 질문 :

1.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삼위일체)이신가?
3.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가?
4.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5. 예수는 인간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6. 그렇다면 예수는 진정 누구인가?
7. 당신의 의견은?

다음의 글을 신중하게 또 비판적으로 읽어 보십시오.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말입니다.

머리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공부하는 자로서 또 수년간에 걸친 관찰과 연구 그리고 비교적 연구를 해온 나에게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판단의 기초를 예수가 권장한 바위처럼 단단한 토대에 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고 모래처럼 변하기 쉬운 토대에 흔히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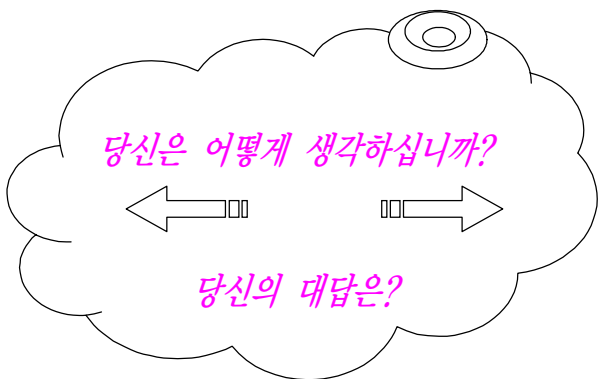
당면한 주제와 관련하여 나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 통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이에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필자는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거니와 본인이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또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운 것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그 누구의 감정도 해치려함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진리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 즉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에 관한 쟁점과 질문들에 관해 논하여 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냐 아니면 세 분이냐?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성경으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여 보기로 하자.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주인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마테오 19장 16, 17절 King James판)

위 절들에 대해 몇 가지 직관적인 질문을 던져보겠다.

◎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 왜 예수는 그 자신의 선에 대해 의심했을까?

◎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

고 예수는 강조하였다.

— 왜 예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라고 말했을까?

◎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 자신을 선으로 부터 제외했을까?

◎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질문자에게 명

명하지 않았을까?

- ⊙ 예수의 증언에 입각하여 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우리 위의 마태오 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똑같은 절을 King James판과 신성서 국제 번역판(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of the Holy Bible)과 비교해서 다시 읽어보자.

-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주인님(*good master*),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Why do you call me good?*)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King James 번역판)

-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Teacher*),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에게 선에 대해 물어보는가?(*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거든 계명에 복종하라.” 하고 대답하

셨다. (신성서 국제번역판)

두 번역판의 표현을 쉽게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King James판에 의하면 예수께서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신성서 국제번역판에서는

“왜 너는 나에게 선에 대해 물어보는가?”

로 되어 있다.

자, 위의 두 가지 표현은 의미가 같은 것인가?
두 표현 다 올바른 것일 수 있을까?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면, 예수의 논리적 대답은 질문자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을 시인하는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건전한 추리와 분명한 논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면 예수 또한 선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 보면 젊은이가 “선하신 주인님”이라고 부른 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답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몇 가지 대답들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 “물론 나는 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 “네가 옳다. 나는 선이다.”
- ◎ “또는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기에 자신이 분명 선임을 알고 있었다면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라는 토를 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의 *“선하신 주인님”* 이라는 호칭에 예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던 것이다. 즉, 예수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하고 물으면서 자신이 선임을 부인했던 것이다.

또 자신의 선을 부인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임을 시인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라면 말이다. 왜 예수는 자신의 선한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했을까? 예수가 질문자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 ◎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뿐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3절)

이 절에서도 예수는 또 다시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다. 예수를 창조하고 보내신 분은 바로 이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고 보낼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인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인가, 예수인가? 명령을 내리고 보내시는 분과 명령을 받으며 보내어지는 분 중 누가 더 위대한 것인가?

-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인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장 5절)

이 절은 두 신분에 대해 언급하는 바,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는 한 분이신 중재자(예수)이다. 즉, 예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절은 예수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절은 전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또는 하나님의 일부분인가 라

는 점에 대해 더 상세히 논해 보기 위해 우리 마태오 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절들을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사십 주야를 단식하신 후 몹시 시장하셨다.*
-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함을 보여 주었다.*
-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다.*

이 절들을 읽고 연상되는 질문이 있습니까?

위 절을 읽고 난 후 나의 마음을 흔든 몇 가지 질문과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1)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사막으로 인도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예수와 성령 중 누가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스스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인가?

2) 위 절의 증언에 입각하여 볼 때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님이라고 간주되는 예수를 악마가 유혹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으니 즉, 하나님이 유혹받을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유혹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유혹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말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12사도 중의 한 사람인 야고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하나님께서서는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분이며 또한 악을 행하도록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의 편지 1장 13절)

3) 성경은 “사십 주야를 단식하신 후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말하는 바, 다음의 추론을 해보자.

- 하나님이 단식을 하시는가?
- 예수께서 누구에게 단식을 해 보이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에게인가 아니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구에게인가?

- 하나님은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는가?

4) ‘유혹을 받으신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마가 예수를 움직여 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마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인 예수에게인가 하나님인 예수에게인가? 만일 사람인 예수에게라면 핵심은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인 예수에게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련받고 움직여질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던 말인가? “하나님은 악에 의해 유혹받을 수 없다...” 는 야고보의 말을 상기해 보자.

예수와 악마의 대화가 끝났을 때에 그리고 “나에게 앞드려 경배하라” 고 악마가 예수에게 말한 후, 예수는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그 분만을 섬겨라.” (마태오 4장 10절)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화신이라면 “아니다, 악마야. 너야말로 너의 하나님인 나에게 앞드려 경배해야만 한다!”라고 쉽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정해 본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악마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위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을 알게 되었다.

- 악마가 예수를 보았다.
- 악마가 예수에게 말했다.
- 악마가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 악마가 예수를 잡았다.
- 악마가 예수를 안내했다.
- 악마가 예수와 말을 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시다’라는 마태오 복음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부를 부디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 *이제껏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6절)

- ◎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 또한 없다.* (요한 5장 37절)

- ◎ *영원한 왕이시여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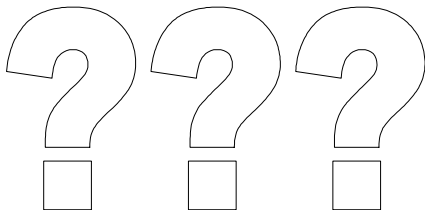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17절)

덧붙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나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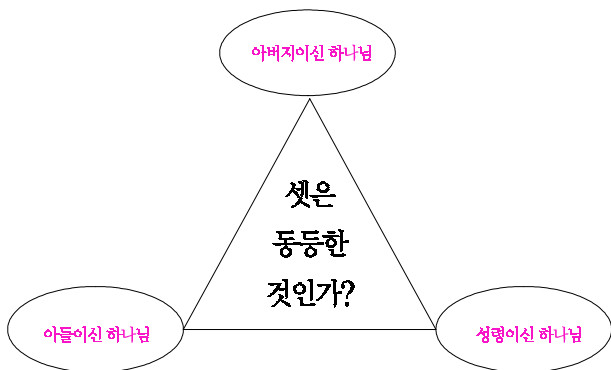
음의 질문을 하여 본다. 즉, 예수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의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던가?

그러므로 위 절에 나타난 예수의 묘사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지만 아닌가?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비판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해 보자.



- ⊙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동등한 것인가?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자.

- ◎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요한 14장 28절)
- ◎ 나에게 나의 양들을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요한 10장 29절)
- ◎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요한 7장 16절)
- ◎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요한 5장 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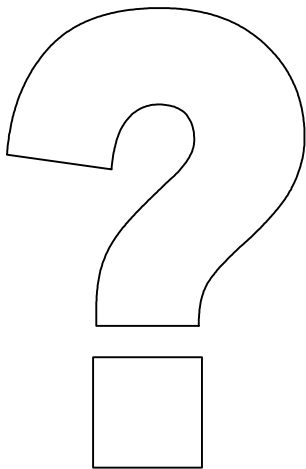
-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마르코 13장 32절)
- ◎ 사람인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 이제건 앞으로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 12장 32절)

예수 자신이 말한 진술들뿐만 아니라 위에 분명히 나타난 진술들을 읽어본 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위대하며 성령보다 더 위대하다는, 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또 자기와 성령은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

다라는 예수의 정직하고 솔직한 증언에 입각하여 볼 때에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성경으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 ⊙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3장 38절)
- ⊙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
-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나는 오늘 너를 낳았노라.”* (시편 2장 7절)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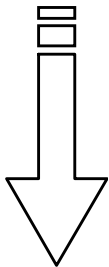
- ⊙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오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성경 속에서 찾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바,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택받은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예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성경으로부터의 증거에 대해서 논해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 사람으로서의 예수

예수가 성경 속에서 사람 또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곳은 많다. 아래에 몇 절을 소개한다.

-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

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 말은 예수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추종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이다.

◎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
(마태오 11장 19절)

◎ *이 사람은 진정한 예언자이다.* (요한 7장 40절)

◎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여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요한 8장 40절, King James판. 일부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당신의 성경을 검토해 보라.)

자신의 생애 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는 자신이 ‘한 명의 사람’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준 하나님의 화신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왜 예수는 분

명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가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 사도(예언자)로서의 예수

◎ *이 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입니다.*

(마태오 21장 11절)

◎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4장 24절)

◎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요한 13장 16절)

◎ *이 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

(요한 6장 14절)

㉠ *예언자이었던 예수...* (누가 24장 19절)

위 절들은 예수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며 사도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절들 중의 일부일 뿐이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둔다.

예수에 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지식!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
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5:7)

위에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

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불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사야 43장 10, 11절)

“내가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이다. 나는 나와 견주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와 유사한 성경의 절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소수의 절들과 비교하여볼 때에 성경 속에 수백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는 예수는 예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오

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다 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의 끝 무렵에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지고 싶다.

- 이제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 이제 예수를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의 예언자이며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 너무 늦기 전에 즉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분께만 경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 부록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원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 등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기원 후 5세기에 태어난 바오로이었다고 날로 증가하는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다.

더 나아가 훗날 바오로의 믿음과 가르침에 의해 채색되고 영향을 받게 된 4대 복음서 이전에 바오로가 그의 편지들을 썼다는 것이 위의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바오로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예수의 본래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디 ‘무엇이 잘못 되었나?’란 제목의 나의 곧 발간될 소책자를 참고 하시기를 바란다.

□ 마지막 생각

이 소책자를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읽고난 후, 진지하고 정직하며 또한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 *무엇이 잘못 되었나?*

위의 질문들과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곧 발간될 소책자들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논의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The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
- 2)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 3)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 4)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 5) The Bible Library, 29 works on one Cd-rom disc, It includes 9 bibles and 20 biblical references, 1995 Ellis Enterprises, Inc. Oklahoma, USA.
- 6) The Multi-Bible Cd-rom, Innotech Multimedia, Inc. Ontario, Canada
- 7) Several web sites from the internet.
- 8) Information and feedback from my public lectures audience and my Weekly Tv program's viewers.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uslimkorea.net>
- <http://www.quran.or.kr>
- <http://www.islaminkorea.org>
- <http://www.islam-korea.com>
- <http://go.to/islamkorea>
- <http://www.freechal.com/islaminkorea>
- <http://www.isuram.org/kkuran/index.html>
- <http://cafe.daum.net/islaminkorea>
- <http://cafe.daum.net/kmsa>
- <http://cafe.daum.net/BISA>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islamicity.com>
- <http://www.islamworld.net>
- <http://www.soundvision.com>
- <http://www.talkislam.com>
- <http://www.hyahya.org>
- <http://www.islamway.net>